



관리자보다 리더를 꿈꾸는 백장수 평가사업본부장

고객홍보팀

6월 30일 자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병원)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다. 본부의 본부장급 5명 가운데에는 김관태 R&BD본부장과 최근에 인사이동을 한 강태종 기획경영본부장을 제외한 3인이 자리를 이동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축병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는 시각이 있다. 이번 호에는 그 시선에 얽힌 궁금증을 풀 수 있을 인터뷰를 준비했다. 신임 백장수 평가사업본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백장수 본부장은 김관태 본부장과 더불어 본원 본부장을 연임하게 된 인물이다. 현재 본부장 5인 중 강태종 본부장을 포함한 3인은 지원에서 본부로 인사이동했기에 KAPE누리 애독자라면 지난해 지원탐방 지원장 인터뷰로 만난 기억이 있을 것이니 이 둘은 아직 독자들과 만나지 못했다. 이송 백장수 본부장은 전임 이력사업본부장으로 이번에 평가사업본부를 받게 되며 기관 주요 핵심사업을 언덕아 이끌게 됐으며 이번 인사 때 강태종 본부장과 더불어 1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Q. 이번에도 그렇지만 주로 사업본부의 본부장을 하셨던 것으로 안다. 평가사업본부장은 이번이 두 번째고, 앞서 말았던 이력사업본부의 본부장도 두 번째, R&BD본부에도 있었다고 들었다.

A. 본부장으로서는 사업본부 쪽에 많이 있었지만 팀장 으로서는 기획경영 쪽 일을 오래 해서 사업본부 외의 일들이 멀리 느껴지진 않는다. 그리고 처음은 평가사업기에 나도 현장에서 시작했다. 신생기관이다 보니 active 한 느낌의 조직에서 active 하게 일을 하는 게 좋아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 항상 어떤 일을 하면 그 업무가 처음인 경우가 많았다. 현장이라는 본부는, 상대적으로 현장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 현장에서 시도했던 역할 변화들이 처음이었던 게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갈등도 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추억이고 보람 있었다.

Q. 앞서도 언급했듯 평가사업본부 전에는 이력사업본부에 있었는데, 두 본부의 차이는 뭐라고 보는가?

A. 이력사업본부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정부와 연결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부처에서 터치를 많이 하지는 않아 본부에서도 업무를 능동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가사업은 업무들이 대부분 오래된 사업들이다. 오래된 만큼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적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이걸 본부장으로 있으며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본다. 다만 유통조사 등의 유통사업 쪽은 오래 지나지 않은 사업이라 아직은 관리 관찬이 필요한 것 같다.

“

이제까지 우리 원의 과업이 생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유통을 통해 축산 전반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Q. 평가사업본부 일부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우선, 돼지 같은 경우는 등급제 도입 약 25년 차다. 그런데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활용도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등급별 거래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닭·계란 역시 2003년 등급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나 시장 상품화 비율이 아직 낮다.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 대비 업무 효율성이 낮고, 사업 효율도 낮다면 판정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변화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꿀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나 등급제나 인증제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크게는 우리 원과 양봉협회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혼란이 야기된다. 이걸 꿀등급제 본사업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꿀등급제가 소비자 현장 홍보를 해보면 참 반응이 좋더라. 아직 시범 사업이었는데 의문을 표할 정도로. 그렇다 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본사업화를 추진하기엔 갈 길이 멀지 않겠나.

A. 맞는 말이다. 본사업화를 추진하자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먼저 추진해야 할 텐데, 이걸 평가사업본부장이 되며 정리한 내 버킷리스트(bucket-list)에 있는 일이기도 하다. 시범사업이 현재는 농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농협과의 협력을 통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최근 식품공전이 개정됐다. 이 과정에 꿀등급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탄소동위원소비가 명기됐다. 전에는 꿀 정의에 사양꿀이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우리도 꿀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기준은 식품공전보다 세고, 양봉협회는 약하다. 그 중간이 식품공전 내용에 해당한다. 식품공전을 기준으로 양봉협회와 협의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후 본 사업 얘기를 할 수 있을 듯하다.

Q. 버킷리스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밖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A. 앞서 언급했던 돼지고기등급제와 가금류 등급판정 시스템 개선이 있다. 그리고 유통사업에 대한 꿈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통사업이 축평원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제까지 우리 원의 과업이 생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유통을 통해 축산 전반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이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1은 본부장으로서 관리가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 싶다는 것이다.

Q. 끝으로, 이 지면을 통해 축평원 가족들이나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달라.

A. 우리 축산을 제대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에 있어서도 축산물 바로 알리기는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축평원도 축산 전문기관이기에 앞서 소비자 속에 있는 기관이 아닌가. 타 기관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으니 우리 축산이 하나 되는 모습을 따뜻한 시각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